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원여러분

이 병 훈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회원여러분들에게 어떤 한해였는지요?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올해는 지금껏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게는 매일, 매순간 챙겨야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부터 시작하여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대중들에게서 느껴야하는 왠지 모를 불편함, 랜선을 통해 소통하는 모든 회의와 수업들은 이제 불편함과 어색함을 넘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이 무미건조하여 생활에 활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괜히 우울하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상에 이미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터득하였을 것이고,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은 그 이전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며 이는 개인위생을 통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 세상은 우리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불필요한 만남과 인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와 우리 이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였고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향후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방역체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전반이 얼마나 우수한지 새삼 느꼈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함은 우리 학회의 일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치러졌지만 대부분의 학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학회도 'New Normal'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올해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